'시선집중' 2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입지원 전략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전문 강사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교도 대학처럼…2022년 '학점제' 도입

수강 신청·기준학점 채우면 졸업
토론·실습 위주…학년 구분 없어
현 초등학교 5년생 고1부터 도입
교사 업무 부담·인프라 부족 우려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 시행된다.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 추구형 학사제도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수학습·평가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하지만 교사의 가중되는 업무부담과 부족한 인프라,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 등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사의 업무량 증가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또 고교학점제가 수업과 평가, 졸업 등 고교 교육과정 전반은 물론 대학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숭덕고 장광재 교사는 "흐름상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게 맞긴 하지만 교사 수급문제 등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많다"며 "소수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있다면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교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선 이를 시행할 수 없다. 부족한 교실 수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요 교원단체는 이런 점을 들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여건 조성, 내신 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와 교사의 과목 개설권 범위와 낙제 제도 도입 여부 등 기본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다"며 "학점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내년 100곳의 시범·선도학교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도 '가축분뇨 악취 절감' 90억 투입

분뇨 자원화·악취 저감시설 등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전남도가 가축분뇨 자원화에 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악취의 근원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7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악취 민원이 최근 2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무안군이 2015년 6건에서 올해 9월 314건으로 52배 이상 폭증했고, 같은 기간 화순군은 5건에서 55건으로 11배, 영광군은 6건에서 62건으로 10.3배가 증가했다. 나주시는 2015년 22건에서 지난해 211건, 올해 168건 신고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들어 악취 민원 907건 중 71.5%인 649건이 악취배출시설외 신고로, 대부분 소규모 축산시설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악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전남도는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생산성 향상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비로 총 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연간 소·돼지·닭·오리 등 경제가축 24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은 600만t에 이른다. 이 중 94%인 564만t은 자원화하고 나머지 6%인 36만t은 정화 처리해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시설에 48억원, 가축분뇨 성분분석 및 가스 측정 장비에 2억원,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에 33억원,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공급에 7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으로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농도를 40% 이상 낮춰 환경이 쾌적해지고, 가축 생산성도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농경지 지력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분위, 조선대 임시이사 9명 중 6명 선임

나머지 3명 내달 18일 결정
여성 후보 없어…교육부 추가 방침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7일 조선대학교 임시이사 9명 중 6명을 선임했다.

조선대에 따르면 사분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추천한 조선대 임시이사 후보 18명 중에서 6명을 파견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3명은 다음달 18일 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사분위는 후보에 여성이 없는 등 다양성이 부족해 3명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달 열리는 사분위 회의 전에 복수후보 6명을 재추천할 계획이다.

이날 선임한 임시이사 후보 6명의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구 경영진 측을 배제하고 설립 당시 민립대 정신에 부합하는 진보성향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닭·오리 '이동중지' 위반 축산업자 7명 적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고 차량을 운행한 축산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일 닭과 오리를 싣고 이동한 축산차량 운전자 7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견된 AI가 지난 19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오전 0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전국 가금류와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곡성에서 나주로 오리를 싣고 이동한 차량운전자 1명이 20일 오전 11시30분께 검역본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또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과 충남 보령에서 무안 도축장으로 닭을 실어 나른 차량운전자 6명도 적발됐다. 해당 시·군은 이들 7명 모두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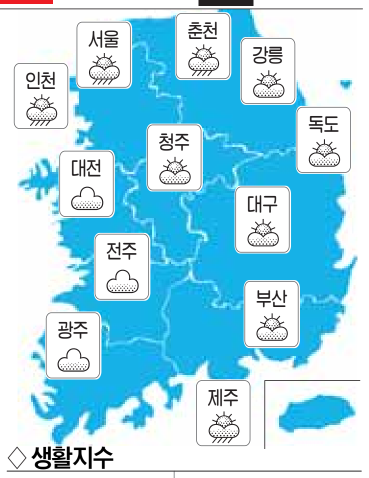
해뜸	07:19
해짐	17:21
달뜸	14:00
달짐	00:58

낮 추위 '주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3/14	보 성	흐림	-2/14
목 포	흐림	5/13	순 천	흐림	4/15
여 수	흐림	8/15	영 광	흐림	0/14
나 주	흐림	-2/13	진 도	흐림	3/14
완 도	흐림	4/14	전 주	흐림	2/12
구 례	흐림	0/14	군 산	흐림	1/11
강 진	흐림	1/15	남 원	흐림	-1/12
해 남	흐림	-1/15	흑 산 도	흐림	7/13
장 성	흐림	-1/12			



◇ 바다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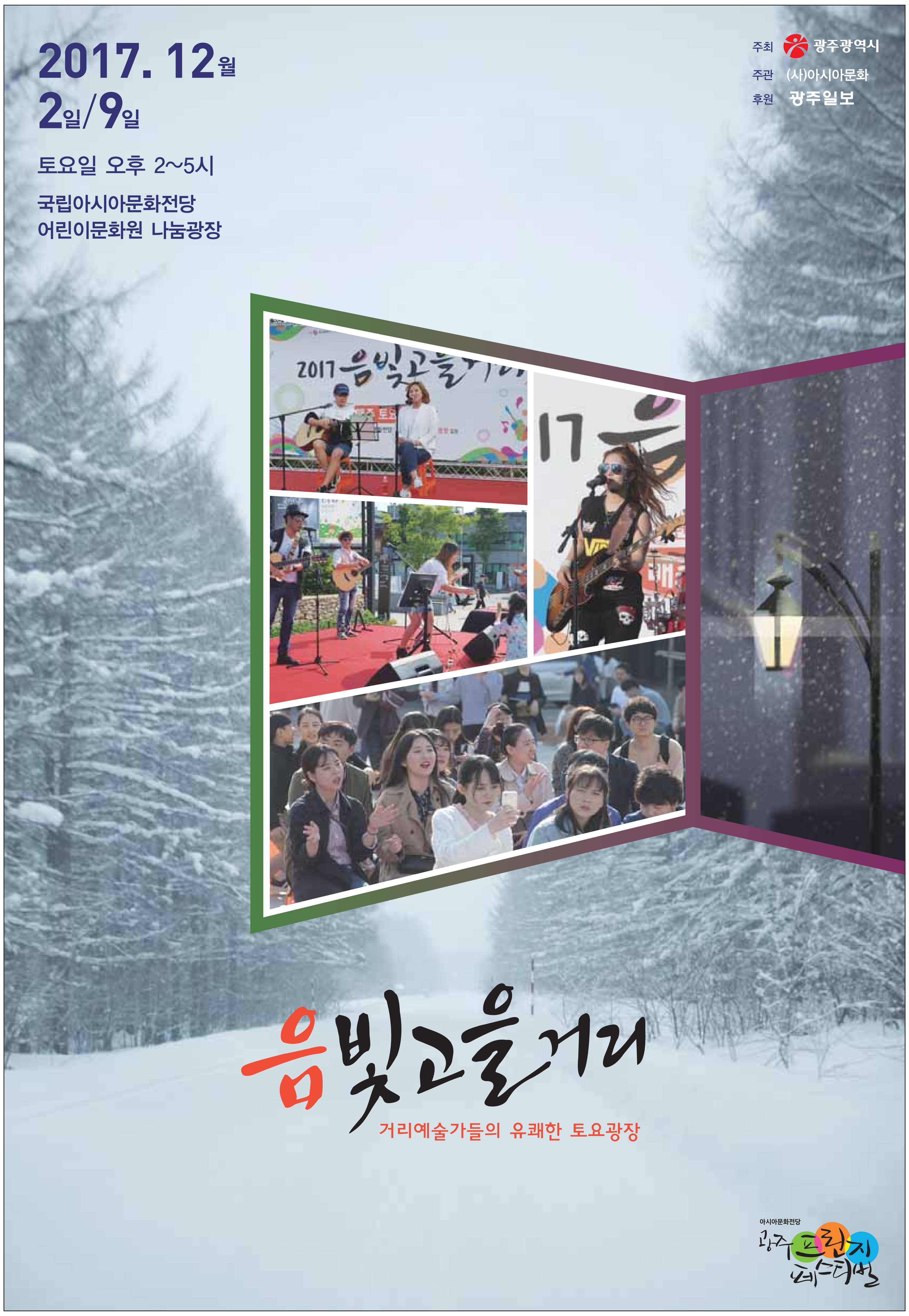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서해남부	먼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서부	먼바다(서)	북~북동	1.0~1.5	남~서서	1.0~1.5

◇ 생활지수

산불	보통
자외선	관심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04	08:43
	14:14	21:16
여수	09:58	04:18
	23:17	16:48

◇ 주간 날씨

29(수)	30(목)	12/1(금)	2(토)	3(일)	4(월)	5(화)
9/11	2/8	-1/6	-2/9	-1/11	2/9	-1/8